바닷가 남편 묘 지키려다 태풍 파도에…

50대 여인 숨진채 발견… 완도 생일도 울린 '애절한 사부곡'

태풍 '산바'가 스쳐간 지난 17일 밤. 완도 생일도 유촌리 선착장 주변에 한 여인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이 마을에 사는 김모(여·59)씨였다.

그러나 김씨는 다음날 오전 잊지 못하던 남편의 묘에서 가까운 선착장 주변 바다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완도해경은 18일 오전 9시30분께 완도군 생일도 유촌마을 선착장 앞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씨를 인양했다.

해경은 김씨가 태풍 뒤끝에 파도가 세게 일었던 전날 밤 남편 묘소 걱정에 이곳에 들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4년 전 바닷일을 하다 목숨을 잃은 남편의 묘를 자주 찾곤 했다"고 이웃들은 전했다.

숨진 김씨는 40여 년 전 인근 금일면에서 이 곳 생일면 총각에게 시집와 평생을 보냈다. 부부의 연을 맺은 이들은 함께 배를 타고 미역·다시마, 전복 양식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 슬하에는 딸 하나와 아들 둘을 두고, 막내아들을 제외하고 자식들을 시집·장가도 보냈다.

자매처럼 지냈다는 주민 박모(63)씨는 "항상 부부간에 함께 배를 타고 바닷일을 하는 보기 좋은 부부로 동네에서 부러움을 샀다"고 말했다.

그러던 김씨에게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 전해진 것은 4년 전인 지난 2008년.

남편 최모(당시 63세)씨가 선착장 앞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은 것이다. 남편이 숨진 이후 김씨는 그동안 관리하던 어장을 팔아버릴 정도로 삶의 의욕을 상실했다. 그리고 슬픔은 해가 갈수록 더해만 갔다.

평소에는 잘 먹지 않던 술을 가끔 입에 대기도 했고 남편이 그리울때면 묘를 찾아 울먹였다. 남편이 목숨을 잃었던 선착장 주변을 배회하기도 했다.

마을 이장 지순영(65)씨는 "김씨가 4년전 남편을 잃은 후 혼자 선착장에 나와 바람을 쐬는 모습을 자주 봤다"며 "남편을 그리다가 변을 당한 것 같다"며 안타까워 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성폭행 숨겼던 학생 성균관대, 입학 취소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던 사실을 숨기고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성균관대에 들어온 학생의 입학과 합격이 취소됐다.

성균관대는 18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지적장애인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담했던 이 학교 1학년 A씨의 합격과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0년 5월 지방 한 도시에서 정신지체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A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에 지원해 합격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자수한 '광산 여고생 성폭행범' 임모(23)씨가 18일 새벽 광주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에서 1차 조사를 받은 뒤, 서부경찰서 광역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면세 경유에 등유 섞어 농장 유통

주유업자·농민 등 36명 검거

순천경찰은 18일 "수년간 원예농민들에게 공급할 면세 경유에 등유를 혼합해 공급한 악덕주유업자와 농민 3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전모(47)씨 등 1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 주유소 업자 20여명은 농민들을 속여 농민에게 공급할 면세경유에 등유를 최소 10%에서 최대 80%까지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해 면세 경유를 빼돌리고 일부 농민들과 짠 뒤 이를 불법 유통한 혐의(상습사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조세범처벌법 등)를 받고 있다.

전씨 등이 수년간 가로챈 면세 경유는 1057만ℓ, 시가로는 278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조사결과 주유소 업자들은 농민들이 등유와 경유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점과 주유할 때 농사일이 바빠 주유 량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농가에 면세 경유와 등유를 자신이 운영한 주유소 탱크로리 차에 싣고가 비닐하우스 저장 탱크에 주유할 때 면세경유에 등유를 혼합한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유소 업자들이 편취한 면세경유를 전국에 불법 유통한 것으로 보고, 가담한 주유소 업자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7년새 7번 음주운전

북부경찰, 30대 입건

광주북부경찰은 18일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범모(31)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범씨는 최근 7~8년새 음주운전으로 7차례 입건돼 벌금과 징역을 선고 받는 등 상습적으로 술김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산 여고생 성폭행범 집에 있었다

대학 휴학생 자수… 경찰 우범자 상대 '헛물 수사' 빈축

광주 여고생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로 공개수배된 2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범행현장에서 2.5km 거리에 거주하는 평범한 가정의 대학 휴학생이었다. 연인원 수천 명을 동원해 검문검색을 하고 지역 내 성폭행 우범자들을 상대로 수사한 경찰의 예측이 어긋난 것이다.

광주 광산경찰은 17일 오후 귀가하는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지난 6일 밤 11시25분께 광주시 광산구 한 원룸촌 인근 공사장에 여고생 A(15)양을 끌고 가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이날 밤 9시 20분께 집을 나와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A양을 발견하고 1km가량 쫓아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동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임씨가 대상을 찾다가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이어폰을 낀 채 걸어가는 A양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밝혔지만 준비해간 흉기로 위협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임씨는 범행 후 촬영한 동영상을 택시에서 삭제했으며, 경찰은 이를 복구하고 있다.

임씨는 범행 이후 경찰의 대대적인 검거작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차분하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한 그는 이튿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폭행 사건이 보도된 사실을 알고난 뒤 2~3일은 집에서 지냈다.

이후 대학 친구 등을 만나다가 지난 9일 경찰이 공개수배에 나서 주변 CCTV 분석 사진을 담은 전단 6만 여장을 현장 곳곳에 배포하면서 외출을 자제했다.

그러나 이목구비를 알아볼 수 없이 흐릿한 CCTV 영상이었지만 부모는 수배전단의 남성이 아들임을 직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수배전단 등을 통해 임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이후 임씨를 설득했고, 사건발생 11일만인 17일 밤 9시35분 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를 찾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공개수배로 전단이 광주시내 곳곳에 뿌려지면서 임씨가 위축됐고 가족들이 알아보면서 결국 자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쇠사슬 묶인 변사체

실종 40대 영광 저수지서 발견

18일 오전 8시께 영광군 한 저수지에서 강모(45)씨가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119구조대가 발견했다.

발견 당시 강씨의 몸에는 돌과 연결된 쇠사슬이 묶여 있었다.

강씨는 지난 14일 가족들에 의해 실종 신고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강씨의 위치를 최종 확인하고 저수지 일대에 대해 수색을 벌여 전날 밤 인근 주차장에서 강씨의 차량과 마시고 남긴 것으로 보이는 소주병을 발견했다.

강씨는 최근 사업 실패로 고통을 겪어왔으며 실종 직전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괴로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의 고향도 저수지 인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음주단속 불만 차량 파출소 돌진

쌍나팔

○…지난 17일 밤 중장비 기사 황모(41)씨가 주차단속에 불만을 품고 굴착기로 경남 진주시 상대지구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데 이어 18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파출소 인근에서 김모(50)씨가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를 몰고 파출소로 돌진.

○…이 사고로 출입문이 파손됐고 유리창 일부가 깨졌고 김씨는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검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5월 자신과 부인이 음주운전으로 낸 교통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이 많이 나오자 이날 홧김에 파출소를 향해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판명.

/연합뉴스

입학문의 062)605-1114

2013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모집학과: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아교육과 | 음악학과 | 실용음악학과

원서접수: 수시 2차모집 2012. 11. 12(월) ~ 16(금) / 정시모집('가'군) 2012. 12. 21(금) ~ 26(수)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www.kwangshin.ac.kr

입학문의 062)605-1115

2013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특별전형]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신 학 대 학 원 석사 – 신학과(M.Div.) 30명
※신학대학원 지원자로서 학부과정이 동일학과 출신자만 해당됨
원서접수: 2012. 10. 8(월) ~ 19(금)

[일반전형]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일 반 대 학 원 박사 – 신학과(Ph.D.) 4명
목회학과(D.Min.) 4명
석사 – 신학과(Th.M.) 33명
신학연구과(M.A.T.) 5명
유아교육학과(M.Ed.) 12명
음악학과(M.A.) 12명
신 학 대 학 원 석사 – 신학과(M.Div.) 50명
교 육 대 학 원 석사 – 유아특수교육전공/초등특수교육전공/상담교육전공(M.Ed.) 20명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 상담심리치료학과(M.A.) 22명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 사회복지학과(M.S.W.) 20명
국 제 대 학 원 석사 – 한국어교원학과(M.A.) 20명
원서접수: 2012. 11. 12(월) ~ 30(금)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光神大學校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

보육교사교육원 평생교육원 생활한방교육원 외국인근로자성경아카데미(한국어과정) 한국어교육원 여자신학원
사모상담전문지도자과정 목회자사모신학원 요양보호사교육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